

#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정희정(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 1-4)

##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살펴보고,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부모 개인의 특성, 부모 대인관계의 특성, 자녀 개인의 특성, 그리고 자녀 대인관계의 특성 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기독교 부모교육이 실제 부모의 삶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의 변화이다. 앞으로의 기독교 부모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의를 포함하면서 자녀양육이 실제 삶에서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형식의 변화이다. 부모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소집단 형식의 부모교육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 부모교육은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자녀의 발달이해와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간 그리고 부모와 교육기관 및 교회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부모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기독교 부모교육, 자녀양육,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과 상담

## I. 서론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이러한 반복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고 진화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이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사회의 발전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가진 유산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순환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이자 스승으로서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은 1960년대에 아동연구와 인지발달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70년대에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워크숍 형태의 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며,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부모교육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외국에서 개발된 민주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PT), 인본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효율성 훈련 프로그램(PET), 효율적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STEP)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 유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아의 정서적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김진이, 2002: 22).

이러한 경향 속에서 기독교 부모교육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교회 및 기독교 기관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들로 하여금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신앙적 양육을 수행할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 및 기술을 습득하며 가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락교회의 유니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각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와 질서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수리 기독교학교의 아름다운 부모학교 프로그램, 성경적인 자녀양육의 지침을 제공하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성경적 부모교실 프로그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의 부모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들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노진형, 2005: 1; 백영숙, 2007: 2; 정안나, 2007: 1). 이는 한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이 특정한 양육자의 몫이 아닌

대가족으로 구성된 한 가정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가정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특정한 양육자에게로 떠넘겨졌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럿이 분담하여 책임지던 자녀양육의 부담을 고스란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이 떠맡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은 당사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높아진 기대와 자녀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의 괴리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쉽게 느끼는 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그리고 어머니들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방송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다룬 일이 있다. 이 방송에서는 '위험한 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2007. 10. 6 SBS 방송), 어머니들은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해소할 수 없는 육아의 부담감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이 방송에 나온 여러 어머니들의 사례들을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별 관심이 없는 특별한 어머니들이 느끼는 것이 아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자녀양육의 고충과 괴로움이 당연시되는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은영, 2009; 김경남, 2009; 김미숙, 2009; 김민수, 2009; 김영희, 2010; 김혜진, 2005; 김춘자, 2009; 노애민, 2008; 박윤미, 2002; 박현숙, 2003; 방한별, 2007; 배수진, 2009; 백영숙, 2007; 서미경, 2009; 서민교, 2007; 안지영, 2000; 유호용, 2001; 임미애, 2007; 윤미향, 2006; 이랑, 2003; 이화영, 2010; 차삼숙, 2005; 최승애, 2006; 최윤경, 2011; 최혜리, 2011; 허순금, 2006; 홍희란, 2002). 이와는 달리 기독교 부모교육에서는 실제 부모들의 삶과 연관된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독교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에서의 부모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교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이론적 토대가 체계적이지 않고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정희정, 2009: 2).

그러나 기독교인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느낀다. 자녀양육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가치있고 귀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하는 반면, 가족구조와 가족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압력 속에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육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보다는 주위의 학업 위주의 자녀교육 현상을 따라가는 데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안지영, 2000: 87), 기독교인 어머니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살펴보고,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질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 1.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무엇을 조이다’라는 뜻을 지닌 ‘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곤란, 역경, 고통, 고생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 압력,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며, 여기에 외부압력에 저항해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이민자, 2008: 22). 현대 사회에 와서는 ‘현대인의 질병’으로 불릴 정도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의 연구주제가 되어 체계적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압력과 같은 자극의 개념으로 보고,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치면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내적, 외적 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는 관계론적 측면으로서의 스트레스로 환경내의 자극과 이에 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스트레스의 의미와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원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개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현희, 2008: 9; 신현옥, 2009: 20).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기쁨이나 보람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인식되어 주로 주요 생활사건으로 개념화되어왔다. 즉 이혼이나 출산과 같은 부모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부모에게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주어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rnic과 Greenberg(1990: 1629)는 하루의 일과로 가정생활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부모-자녀 관계의 일들이 부모에게 성가심과 어려움, 신경질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개념화하여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라고 명명하였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처럼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 사건이나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불안, 정서적 긴장, 피로감 및 피로감 등이 일상적인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김정은, 2004: 17), 최근에 와서는 스트레스의 원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개인, 즉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로서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소한 스트레스이나, 이러한 일상적인 사소한 스트레스가 매일 반복되고 누적되면 부모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초래한다(Abidin, 1990; Lazarus & Folkman, 1984). 즉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과 공격성을 증가시켜 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김미숙(2005)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합리적 지도를 덜 하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숙재(1997)와 박용임(199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그에 따른 반응으로 권위주의적 통제나 명령, 비난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에 대해 보다 애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영(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이나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등의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방임적 허용이나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희(2008)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정서적인 부적절한 양육행동, 방임, 신체적인 부적절한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었다. 김인희(2011)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아진다고 하면서, 아동의 타인이해 또는 공감적 능력은 어머니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유진(2006)은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학습기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경하(2009)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월령집단에 비해 25-30개월 월령집단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영아의 발달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는데,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들과의 신체접촉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많지 않았다. 최혜리(2011)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짐은 물론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아짐을 볼 때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를 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그리고 어머니의 전반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이루어진 접근들은 먼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원을 이해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자녀양육 스트레스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밝혀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백영숙, 2007; 이유진·박경,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녀가 잘못된 경우 이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전적인 희생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경우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은 부모로서의 위기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성인의 다른 역할에 비해 부모의 역할은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게 되므로 부모 역할로의 역할 전환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노진형, 2005; 정안나, 2007). 자녀를 낳기만 하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부모로서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변화하는 자녀의 발달적 욕구, 자녀를 가짐으로써 생긴 개인적 변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모는 이 요구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가 가진 개인적 욕구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욕구와 조화되지 못할 때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스트레스의 원인보다는 부모의 지각과 연관이 있다(박응임, 1995; Lazarus & Folkman, 1984). 이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성격과 지각이 스트레스 지각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질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였다. 이처럼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특히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넷째, 취업 등으로 인해 현재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발되는 죄책감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경은, 2004; 김혜진, 2005; 문혁준, 2004).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신체적 피로감 및 시간적 제한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격리상황으로 인한 불안 및 죄책감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의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가족간 불화 등은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이랑, 2003).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다시 부모가 죄책감이나 무능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

한편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일반 부모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특히 남편의 지지는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그만큼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신숙재, 1997; 전춘애·박성연, 1998).

아무런 준비 없이 자녀의 출생과 함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녀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자녀양육 혹은 부모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는 있지만, 오히려 과도한 정보들은 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부모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인 역량과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부모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부모 간, 부모와 교육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과 양육 실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층적이고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측면이 고려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김진이, 2005: 22; 윤정혜, 2007: 168; Powell, 1986: 50).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문제 상황별로 개인적인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훈련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 부모교육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 부모에게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적일 수 있는 양육문제를 상담기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효율적인 부모교육이 되리라고 생각된다(김진이, 2006: 85). 즉 어머니 개인에 대한 지지적 접근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나가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유진·박경, 2005: 53).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모교육에 대한 다학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최익순, 2003; 강경란, 2004; 김진이, 2006).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기독교 정신을 이념으로 설립된 세 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유아의 어머니 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R유치원 10명, D유치원 10명, O유치원 9명으로 모두 기독교인이다.

어머니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26-30세가 2명, 만 31-35세가 9명, 만 36-40세가 15명, 그리고 만 41

세 이상이 3명이었다. 어머니들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강사 등 전문직 3명과 시간제로 일하는 1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 어머니들의 신앙경력을 살펴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7명, 16년 이상 된 사람이 11명, 11-15년이 2명, 6-10년이 3명, 5년 이하가 6명이었다. 기독교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21명이었고, 비기독교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8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들에 대해 살펴보면, 만 3세 유아가 4명, 만 4세 유아가 13명, 만 5세 유아가 12명이었다. 성별은 남아가 12명, 여아가 17명이었다.

## 2. 연구기간 및 장소

본 연구는 세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세 곳에서 총 8주간 실시되었다. R 유치원은 2008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D 유치원은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O 유치원은 2008년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어머니들은 1주일에 1회 2시간 30분씩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장소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세미나실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를 중심으로 둥글게 자리를 배치하여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서술적 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과제 형태의 서술적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서술적 관찰 자료

서술적 관찰이란 연구자가 보고 들은 것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나가는 것을 말한다(이용숙, 1995: 119). 연구자는 교육시간에 일어난 연구자와 참여 어머니들의 말과 행동, 기타 사건들을 차례대로 서술하였고, 연구자가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 교육시간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심층면담은 폭 넓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 나가는 면담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 목록을 사용하지만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갖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질문을 순서대로 해나가되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해 나가는 구조화된 면담에 가까운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이용숙, 1995: 127). 따라서 이 면담방식은 면담자가 많은 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였다.

연구자와 참여 어머니들의 면담 내용은 현재 어머니가 처한 자녀양육의 상황과 스트레스,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 반응행동으로 인한 결과,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 자녀양



육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 자녀에 대한 목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의 객관성과 보존을 위해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 3) 서술적 설문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참여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을 보완하기 위해 서술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적 설문 조사는 관찰이나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이용숙, 1995: 133). 연구자는 매 주 참여 어머니들에게 열린 질문으로 구성된 과제를 부과하였고, 이를 통해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인 분류체계분석에 의해 분류되었다. 참여 어머니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서술적 관찰, 반구조화된 면담, 그리고 서술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모 개인의 특성, 부모 대인관계의 특성, 자녀 개인의 특성, 그리고 자녀 대인관계의 특성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분류한 아비던(1990)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 IV.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실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 개인의 특성

부모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로 부모의 기질이나 내적 욕구의 좌절로 인한 감정적 반응들이다. 부모의 우울, 분노, 의기소침 등과 내적 성취나 목표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들이다. 즉 어머니의 성격이나 기질이 원래 소극적이거나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며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최근 부모교육에서는 MBTI와 같은 심리검사를 통해 부모 개인의 기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검사의 유익은 개인에 대한 내적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이러한 심리검사를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K 어머니 :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아요. 한번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기로 했는데...가다보니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났어요. 아이한테도 짜증을 냈고... 그리고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오지 않겠다고 말했죠. 함께 결정한 사항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야 했는데...아이 때문이 아니라 항상 제 기분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요.

C 어머니 : 거실을 치워야 하는데 아이의 줄넘기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안치우면 버린다고 협박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에게 짜증을 낸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서글픔이 밀려와 눈물이 나는 걸 훌쩍이며 감춰야 했어요. 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고, 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풍다는 남모름 두려움이 들었어요.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소리지르고 같이 우는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요.

Y 어머니 : 제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려워요.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근데 아이들이랑 집에 있으면 잘 못해주겠어요. 책 읽어주기도 힘들고...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남편 때문에 가정교육이 안된다고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저한테 아이들을 잘 못키운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둘째, 부모의 활동과 진로 문제로 인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함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거나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로 간주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부모와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C 어머니 :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에게 장난을 치게 되었어요. ‘○○아, 나중에 엄마 휴가 줄거야?’ ‘응’ ‘그래, 그럼 엄마 여행가도 되겠네?’ ‘나랑 같이?’ ‘아니, 엄마만’ 그 순간 아이가 울었는데, 서러웠는지 슬펐는지 다 토했어요. 괜한 말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예전의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주 잊어버린다.-과제중에서-)

C 어머니 :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하구요. 아이가 혼자 놀아주면 좋겠는데, 꼭 함께 놀기를 원해요. 책도 10권 이상을 읽어줘야 해요. 아이가 엄마가 항상 바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이렇다 보니 저는 항상 그만 좀 하라고 소리지르게 되요.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목표나 기대가 높은 경우에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확고한 경우, 부모들은 그 신념에 적합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느꼈다. 또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의 특성보다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자녀를 맞추려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부모가 교사였거나 교사인 경우 자녀에게 완벽함을 많이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자녀의 하찮은 실수에도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K 어머니 : 저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 짜증이 많이 나요. 편식할 때,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어길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럴 때 저는 아이를 엄하게 다스리고 체벌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힘으로 아이를 제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과 무력감을 느껴요.

C 어머니 : 아이가 넷이에요. 정말 일이 많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과 남편에게 자녀를 잘 키웠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넷째, 부모의 건강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짜증을 내는 횟수가 많았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K 어머니 : 아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녁이 되어 피곤이 몰려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거나 무엇인가 요구할 경우 저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다 폭발하곤 해요. 아이에게 화를 낼 기운도 없을 때에는 방관하게 될 때가 많아요.

L 어머니 : 저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요. 아이들도 소화기가 약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먹으려고 해요. 사주지 않으면 계속 울어대며 조르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부어요. 아이들만 보면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올라요. 늘 몸과 마음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어요.

## 2. 부모 대인관계의 특성

부모 대인관계의 특성은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즉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부모가 겪는 갈등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이다. 직장 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머니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양육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C 어머니 : 저는 행동이 많이 느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못해요. 항상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근데 남편은 퇴근하면 자기도 피곤하다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거나 잠만 자요. 물론 남편도 힘들겠죠. 하지만 저도 힘들다보니 남편에게 소리지르고 또 아이들한테는 신경질을 부려요. 이런 삶이 매일 반복되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요.

둘째,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부부간의 대화가 없었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어머니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하기도 하고, 자녀의 특정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M 어머니 : 남편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오면 짜증을 많이 내고 큰 소리만 쳐요. 특히 아들에게는 거친 말(새끼야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도 자주 따라해요. 또 아토피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만을 사와요. 아이가 3살 때 아빠를 한강에 빠뜨려서 뚜껑으로 닫아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점점 과격해져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C 어머니 : 남편은 집에서 어떤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끔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에게 책임추궁을 해요. 가정의 일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짜증이 아이들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못할 소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해요. 교회에서도 다른 어른들을 대할 때 직접 말을 못하고 저에게 귓속말로 해서 제가 말하게끔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애들의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요.

셋째, 고부간의 갈등이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든 혹은 살지 않든 고부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고부간 자녀양육의 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머니들은 시어머니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M 어머니 : 하루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하니깐 ‘그럼 할머니한테 사달라면 되지!’라고 말하더라구요. 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랑 같이 자자고 하면 저희 아이는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 이유는 할머니랑 자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을까봐 그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시어머니가 아이가 밥 먹을 때 먹여주지 않으면 좋겠고, 아이들이랑 있을 때에는 TV 보는 것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요.

C 어머니 : 시댁은 저에게 짐같은 존재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시댁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요.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만 해도 극도의 히스테리를 느껴요.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한 후에 TV 볼륨을 크게 높여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해요. 또 남편에게 하소연할 때도 많은데, 잘 들어주지 않아 언성을 높이고 울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도 옆에서 같이 울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늘 징징거리고 이유없이 자주 울어요. 심지어 토하기까지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가 되요.

### 3. 자녀 개인의 특성

자녀 개인의 특성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 기질은 인성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성의 한 면인 개인의 정서적 반응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질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환경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영유아기 때부터 전 생애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즉 기질은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특성에 따라 일정한 반응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기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도구에는 MBTI(성격유형검사), 애니어그램, 기질검사(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그리고 DISC 행동유형검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DISC 행동유형검사 유형에 따라 자녀의 기질을 분류하였다.

DISC 행동유형은 담즙질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D형(Directive Determined 지시적인 주도형), 다혈질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I형(Interactive Influencing 상호적인 사교형), 점액질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S형(Supportive Soft-hearted 지원적인 안정형), 그리고 우울질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C형(Corrective Conscientious 완벽주의적인 신중형)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어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유형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김경희, 2010; 48-57).

첫째, D형의 아이들은 외향적이며 과업 중심적이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부여해주면 그것을 끝까지 달성하려고 하며, 자신이 일을 주도하는 것을 즐긴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서 자기 자신과 능력을 믿으므로 외부의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일을 결정한다. 그러나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자유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간섭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느낄 때에는 쉽게 공격적이 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 유형의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주위 사람을 잘 참아내지 못한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도전을 좋아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다.

K 어머니 : 우리 아이는 일등을 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을 느끼면 졸려도 울면서 더 하려고 해요. 현관문도 일등으로 나서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일등으로 타야하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도 일등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울고 빠져요. 쇼핑을 가도 자신의 것을 먼저 사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정하고 투덜거려요. 옷도 자신이 원하는 분홍색 스커트와 스타킹만 신으려고 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다른 옷은 안 입으려고 해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도 엄마 탓을 하면서 울어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요.

둘째, I 유형의 아이들은 감성적이고 외향적이며 사교적이다. 낙천적이고 남을 도와주기를 즐기기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하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통제가 어렵고 혼자 있기를 싫어한다. 특히 이러한 아이들은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참기 힘들어한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나 종종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끝마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C 어머니 : 아이가 집요하게 떼를 써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떼를 쓰는 편이라 시끄럽고 지겨워서 들어주는 편이예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격한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화가 나서 때릴 때도 많아요. 요즘에는 여섯 살된 아이한테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라고 소리도 질러요. 이제는 아이를 통제하고 싶지도 않아요.

셋째, S 유형의 아이들은 조용하고 온화하며 과묵할 정도로 변함없이 고분고분하며 내향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아이들은 까다롭지 않은 아이들로 불린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하는 아이들은 태평스럽고 고분고분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고 수동적인 반감 심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가 날 때에도 참고 불만을 털어놓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내면세계에 나쁜 감정들이 습관처럼 일어나 쌓이지 않도록 예민하게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K 어머니 : 우리 아이는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는 좋게 일어났는데, 아침밥 먹이려니 누워서 울고만 있었어요. 말로 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하고, 밥 먹자고 해도 안 듣고, 물만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더라구요. 결국 화나서 한대 때려 유치원을 보냈어요.

A 어머니 : 우리 아이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물어보면 한번에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고 싶어하는 일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또 사소한 일에도 잘 빠치고 울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친구가 인사하면 모른척하고 그냥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C 유형의 아이들은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예민하고 완벽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아이들은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종종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존심이 몹시 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 아이들은 질서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모범적인 어린이들이다.

L 어머니 : 아이가 고집이 세고 예민한 편이예요. 성격도 급하구요. 요즘에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대요.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수준이 높다고 해요. 저희 부부는

다 바빠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든데, 저희 아이의 행동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번에는 반항을 하는건지... 껌을 못씹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건물 아래에서 혼자 서있기도 했어요.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화가 나요.

#### 4. 자녀 대인관계의 특성

자녀 대인관계의 특성은 자녀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또래나 형제와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자녀의 기질보다는 자녀의 외적 환경 요소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첫째, 자녀의 또래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유치원 혹은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부모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부모들은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 어머니 : 집 골목에 또래 친구 7명 정도가 있어요.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함께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아이가 집에서 친구들이 무섭다고 해요. 누구 누구가 힘이 세다고 하면서 자기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해요. 또 가끔 함께 놀 때 보면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놀 때가 많아요.

둘째, 유아의 형제관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대부분 첫째 자녀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는 책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째 자녀들도 동생들로 인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K 어머니 : 8살 누나랑 많이 싸워요. 왜 싸웠는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잘못된 쪽이 사과하도록 하는데, 주로 동생이 많이 잘못하죠. 근데 말뿐이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더 자극적인 벌을 주어야겠다는 감정과 분노가 느껴져요.

C 어머니 : 7살 여자아이인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1주일에 5번 정도 밤에 자다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저는 큰 애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한번은 아이가 자다가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큰애가 알뜰게 느껴져요.

L 어머니 : 큰애와 작은애가 많이 싸워요. 큰애가 둘째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매일 엄마한테 사랑하고 안아달라고 해요. 요즘에는 동생을 살짝살짝 때려요. 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자고 때를 쓰기도 하고, 사촌 집에 가면 집에 안오려고 해요.

## V.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녀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일반 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인 어머니들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같은 대인관계의 불화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느꼈다. 또한 자녀의 발달과 특성에 대한 정보의 결핍이 있었고, 자녀의 형제관계나 친구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부모교육은 실제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그들의 삶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1. 부모 개인의 특성

부모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이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경우이다. 즉 스트레스원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할 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높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모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이 소극적이거나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 둘째, 부모의 활동과 진로에 대한 욕구가 좌절된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목표나 기대가 엄격하거나 높은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실제적인 스트레스원보다는 그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부모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부모교육에서도 개인이 스트레스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를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모 자신의 이해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부모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권유진, 2010: 100; 김정선, 2005: 77). 앞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애니어그램이나 MBTI와 같은 심리검사의 도움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의 이유나 방향성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또 동일하게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내적 통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질 검사는 전적으로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는 기독교 관점에 의거한 검사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부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소와 함께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한 후천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지니는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자신의 부모인 원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



한데, 실제로 어머니들은 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양육행동에 원부모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삶의 주요한 사건들을 고려해봄으로써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이에 따른 행동양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건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왜곡된 경우가 많으므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들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자녀로 인해 무의미해졌을 때,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혼란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의 가치와 자녀양육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배우고 부모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의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기독교인 부모들의 실제 자녀양육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적용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사회의 삶의 목표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성공이 되어버렸고,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부모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로 자녀양육의 초점을 돌리고, 이를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성품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속에 살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모들의 개인적 성격이나 기질이 자녀양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부모 자신의 내적 통찰을 위해 과거의 배경이나 현재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볼 수 있으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모 자신의 이해는 더 높은 목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성령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을 자녀양육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행동양식 혹은 자녀양육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에 머무르는 일반 부모교육과 달리, 부모들이 그들의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2. 부모 대인관계의 특성

부모 대인관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이 있다.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시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주요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더라도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전통사회에서는 어머니 외에 자녀를 잠시라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내에선 오로지 어머니에게 그 책임이 집중되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과의 불화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고부간의 갈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과 교회들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자녀양육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역할의 의미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인 지원망을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행사 위주의 부모교육이 아닌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독교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한정된 기관 및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은 그 기본 현황도 파악되지 못한 실정으로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부모교육은 주간교육계획안을 활용한 형태이었다(이정미, 2005: 51; 이화정, 2001: 1).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부모들은 기독교 부모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일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 기관이나 교회에서의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관 및 교회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먼저 예비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알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준비와 함께 달라진 남편의 역할이나 시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기관 및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 및 교회 내의 전문적인 사역자나 인적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3. 자녀 개인의 특성

자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의 까다로운 성격이나 기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이다. DISC 행동유형검사에서는 자녀의 기질을 지시적인 주도형, 상호적인 사교형, 지원적인 안정형,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신중형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자녀의 기질을 설명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부모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심리학 이론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자녀양육의 원리나 방법들을 무조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모든 방법이 모든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부모교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인 유아의 심성 발달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과학적 연구와 검증을 통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유아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교육 전문가들로 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아의 발달을 부모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녀의 심성과 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 의거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나의 보편적 원리가 아닌 대상 자녀에 적합한 구체적인 자녀양육방법을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 체제가 필요가 있다.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부모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취약하였다(권유진, 2010: 100). 마치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원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자녀양육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이 기독교 부모교육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자녀 대인관계의 특성

어머니들은 자녀의 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갈등에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또래나 형제와의 갈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에 기독교 부모교육에의 적용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식은 자녀가 앞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정서적 성장도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이때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으로 자녀의 또래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형제간의 서열과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등 바람직한 형제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로 많은 어머니들이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였는데, 현대 사회의 가정해체와 가정과괴 현상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만약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형제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이는 공동체 혹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녀를 통해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모교육으로 나아

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 부모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의 변화이다. 앞으로의 기독교 부모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의점을 포함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실제 삶에서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인 부모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독교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이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교회에 기도하러는 가지만, 실제적인 자녀양육의 방법이나 문제해결 방법들은 심리학에서 찾는데, 이에 대해 내러모어(Narramore, 1982: 9)는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삶의 기초적 측면인 부모역할하기(parenting)라는 과제를 일반 교육과 심리학의 분야에 떠맡겨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독교 부모교육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신앙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형식의 변화이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들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이러한 고립화 현상은 부모들에게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부모들의 삶과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며 나눌 수 있는 소집단 형식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Kelly(1981: 28)는 부모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들이 함께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형태로 소집단 토의(small discussion group)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상담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트립은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화에 기반한 상담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Tripp, 1990: 108). 슈니트거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방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담적인 교육만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상담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Schnittger, 1995: 44).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들 역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기 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제들을 전문가 및 다른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담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숙영, 2006: 56).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부모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통합하는 다학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자녀의 발달이해와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간 그리고 부모와 교육기관 및 교회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부모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담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유진 (2010). “기독교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통해 본 부모역할기에 관한 연구: 모학교, 성경적 부모교실, 마더와이즈, 유니게 부모학교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경은 (2004). “취업모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경희 (2010). “영유아의 성격유형과 발달에 따른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DISC 행동유형이론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진이 (2005). “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현희 (2008).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육아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노진형 (2005). “부모교육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적용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1-20.
- 민숙영 (2006). “유치원 부모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신현옥 (2009). “유아기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배화논총』, 28, 17-39.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정혜 (2002).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고찰”. 『대학생활연구』, 20, 143-169.
- 이경하 (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 랭 (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민자 (2008). “늦부모와 일반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용숙 (199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 『교육논총』, 11, 59-143.
- 이유진 (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유진·박 경 (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 이정미 (2005).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정 (2001).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전춘애·박성연 (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 16(1), 95-105.

- 정안나 (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최혜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7년 10월 6일.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Crnic, K. A. and M. T. Greenberg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Kelly, F. J. (1981). “Guiding Group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7(1), 28-32.
- Narramore, B. (1982). *Parenting with Love and Limits*. Grand Rapids, Michigan: The Zondervan Corporation.
- Powell, D. R. (1986).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Young Children*, 41(3), 47-53.
- Schnittger, D. (1995). *Equipping Parents for Rearing Adolescents*. D. Min. Projec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Tripp, T. A. (1990). *Parenting Shepherding the Child’s Heart*. D. Min. Projec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The S서요 for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BSTRACT]

Hee-Jung Chung( Lecturer of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contents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of Korea which is centered about the early childhoo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arenting stress of christia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as analyzed. The categories of the data collected consist of parent's internal characteristics, parent's external characteristics, child's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s extern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christian parent education and the real lives of christian par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urrent christian parent education has to be changed. Two directions can be suggested: firstly, the content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has to provide the concrete help for christian parents to overcome the stress of parenting in their real lives. It means that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has to pres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stress of parenting and the faithful help of God for christian parents. Secondly, the new form of the christian education has to be presented. The parent education with a form of small group and the counseling of the expert will be the solution.

\* Key words: Christian parent education, parenting,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